

기 념 사

20년 전 이때, 우리는 이곳 조계사 마당에서 종단 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종도들의 열망이 용광로처럼 분출하며, 단결된 사부대중의 원력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종단은 자주성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 운영이라는 종도와 불자의 지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종단 내적 문제에 매몰되었던 상황에서 자비의 실천이나 사회 구제에는 신경을 쓸 여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산빙벽에서도 새싹이 자라고, 얼음장 아래로 흐르는 물이 새 봄을 재촉하듯 우리 종단의 새벽을 외치는 깨우침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각성이 활화산처럼 분출된 것이 바로 94년 종단 개혁입니다.

그 결과로 출범한 개혁회의는 정법종단의 구현, 불교 자주화 구현, 종단운영의 민주화, 청정교단의 구현,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라는 5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심 대신 공심이, 사리사욕 대신 신심과 원력이 우선하였기에, 순수한 열망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수많은 난관과 좌절을 극복하고 종단 개혁이라는 장엄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개혁불사를 통해 종단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종무행정의 현대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나아가 종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포교의 기틀을 세우고, 한국사회를 향한 자비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개혁의 법통과 정통성을 유지해 오면서 만족한 결실과 미흡한 것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종단의 변화와 발전은 실로 눈부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여망입니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쇄신

하겠다는 것이나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는 조계종’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단 개혁은 2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신우일신해야 하는 우리에게 개혁은 언제나 오늘이 시작점이며, 매일 새로운 변화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명입니다.

이제 다가올 종단의 새로운 20년을 밝게 열기 위해서도 개혁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정신은 매일 새롭게 조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20년 전의 과거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일, 우리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하나 된 염원으로 종단 개혁을 이루었듯이, 다시 한 번 사부대중의 지혜와 원력을 모아 종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불기2558년 4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